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민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고,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지적사항·제안 제보도 받습니다.

독자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6
천리안: AEUM 하이텔: HBS3470

7월 남북 합동법회 봉행 통일 앞당기는 초석되길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스님과 몇몇 스님들이 오는 7월 말경 북한을 방문, 남북한 불교지도자가 모두 한자리에서 남북평화통일 합동법회를 봉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정부도 불교계의 북한 방문을 적극 허용한다고 하니 법회가 실제로 이루어져 불교문화속에 있는 남북의 공통점을 통해 한민족임을 확인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저 금강산 뜰에 안고 요한 산사에도 가고, 곳곳에 불린 유수한 불교문화유적들도 발굴해 민족의 정기를 불교문화의 남북 교류를 통해 이어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아무쪼록 모든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남북불교교류의 새 장을 여는 이번 남북의 원만한 성취를 두손 모아 기원하자.

송선경(서울 송파구 방이동)

불자가정 스티커 보급 생활불교 실천 이끌어

얼마전 친구로 부터 불자가정 스티커를 건네받고는 산뜻하고 세련된 모양의 스티커를 대문앞에 붙였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자주 절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떤때는 내가 과연 불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부끄럽기도 했던 나에게 스티커를 대문에 붙이고 나서 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일을 시작하기위해 집을 나서며 대문을 잠그는 시간과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와 대문을 여는 시간은 스티커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합장 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불자가정' 스티커는 나에게 내가정인 바로 부처님 도량이고 생활이 곧 불법실천이라는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현대불교신문의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보급운동에 박수를 보내며 많은 불자들이 나처럼 자신이 불자임을 새로이 깨닫는 인연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선숙(서울 용산구 갈월동)

조계사 공권력 투입 유감 원만한 해결방법 아쉬워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조계사 한국통신노조의 단식투쟁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투입을 바라보면 서 문민을 등에 업은 또다른 독재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평화적 중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집행이라는 허용받은 명분으로 우리의 노동자들을 공권력의 율기기로 해 인격의 정기를 불교문화의 남북 교류를 통해 이어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정부의 법집행이 악법도 법이라는 명분에 충실한 것이라면 노동자들의 투쟁또한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정당하고 당연한 그들의 권리찾기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사회적 정의는 정부 혼자만의 독선적인 힘으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사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단 몇분만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이번 공권력 투입은 민주주의가 진실로 이땅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했다.

어느사회나 대립과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 그 대립과 갈등을 원만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안정된 발전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좌우될 것이다.

정철우(울산시 남구 고사동)

가야산 골프장 건설 자연·문화환경 파괴

해인사가 있고 인류의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가야산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가야산에 골프장을 만들려는 기막힌 발상은 그 자체부터가 자연파괴이고 반문화적인 작태다.

가야산에는 해인사에도 크고 작은 고찰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팔만대장경을 옮겨온 가계재가 있다. 따라서 가야산 골프장 건설은 단순히 현상계의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문화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개발에 눈먼 입주들과 정부당국은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개발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어떤 명분이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문화의 산실을 파괴하는 행위는 불자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천영길(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불교팬시용품 대중화 어린이포교의 밑거름

며칠전 국민학교 2학년인 우리집 둘째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만점을 받았다며 상품을 받았다.

부모마음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어떤 선물인가 펼쳐 보았더니 글씨 성경말씀이 새겨진 필통이었다. 불교계에도 근래 들어 다양한 문구 팬시 용품들이 선보이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일

반 문구점이나 팬시전문점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나의 개인적인 안목으로는 불교팬시용품이 절대 상품성면에서나 디자인면에서 일반제품에 뒤떨어 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불교전문용품점이나 가야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우리들과 같은 어린불자들이 불교팬시용품을 접할 기회도 별로 없고 어쩌다 어린이 법회에서 받아오는 연꽃달린 필통, 동지승 인형, 열쇠고리 등이 고작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수많은 어린불자들에게 생활 구석구석에서 숨쉬는 불교의 정서를 심어주고 올바른 불교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의 하나가 어린이 불교팬시용품의 대중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노명숙(김원도 강릉시 유신동)

불법타락선거등 감시 지지시대 참일꾼 뽑자

이번 지지대 선거가 불과 보름정 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명선거를 이룩하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니 다소 위안이 된다.

특히 불교계에서도 여느때와달리 공명선거를 이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반갑고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 임후보 등록을 마친 지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 불법타락선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니 '역시'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방화시대의 참일꾼을 뽑는 일은 유권자의 주인의식과 일꾼으로 나서겠다는 사람들의 성실성과 덕망이 어우러지는 잔치인데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늘 싸우고 혈투고 시끄러워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백호(광주시 서구 송하동)

6·27선거 보살심으로 치르자

6·27로 가는 행렬이 분주하다. 공명선거를 의지는 구호가 높이는 만큼 유세현장의 표물이 바람도 뜨겁다. 뜨거운 표물이 바람과 공명선거의 실현 사이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염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후보자들의 터무니없이 장황한 공약이나 '이 기회에 한번' 하는 모종의 기회잡기 심리가 공명선거 실현의 지를 격정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미 30년전부터 거론돼 왔던 지방자치제가 눈 앞에 다가왔고 그 첫 문이 선거를 통해 열리게 된다. 이런 절에서 이번 6·27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제 선거는 조선시대 의원을 뽑는 데의 원형을 따는 선거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파견한 지역 대표가 아닌 지역민 스스로가 뽑는 지역대표의 탄생이기 때문이다.

지역민의 정서와 지역 경제·문화의 지도자를 뽑는 이 시점에서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홍륭한 제도를 훌륭하게 지켜 나가려는 의지의 현실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나는 '자정기의(自淨其意)'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지낸다'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선거의 바람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 데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정신의 꽃대라고 생각한다. 지지대의 대표로 출마한 사람도 한결같이 그 마음을 깨끗이 지녀야 할 것이고 그 대표를 가리는 지역민의 마음 역시 스스로 맑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세운 불자들은 한 순간도 사된 생각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마음이 맑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은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첫 대문을 여는 지지대의 문 앞에서 우리는 거둬들여 '자정기의'의 교훈을 되새겨

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만 맑게 지니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체에 불과하다. 개인개인의 깨끗한 마음을 사회적으로 확대시키고 또 그것을 일련의 제도장치로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자정기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개체의 존중이다. 불교는 개체의 존중에 앞장서는 종교이다. 개인의 깨끗함을 사회의 투명성으로 확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할 일이다.

우리는 이 선거에서 모두 보살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자정기의'하고 사회를 맑게 하는 그런 보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불국정토 실현은 먼 곳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으로 정토를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불자로서 이 사회에 설

수 있는 기본 요건이기도 하다. 6·27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가짐 때문에 나는 '자정기의(自淨其意)'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백성이 주인이란 논리는 백성이 부처라는 뜻과도 통한다. 국민 개개인 부처님일때 이 땅은 불국토가 된다. 지지체는 불국토 실현의 의지를 모으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논리의 현실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깨끗이 지키며 매진해 가야할 실천과제일 뿐이다.

선거는 끝나고 나면 무상한 것이 다. 그 공허함의 앞 단계가 얼룩지면 후유증만 크게 남는다. 시작도 끝도 깨끗한 선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보살심을 지니고 있을때 이뤄질 수 있는 지상과업인 것임을 명심하자.



혜정 스님 (삼각산 문수사 주지)



'개집과 보물'

경남 함양 송인사에 설치된 개 사육장이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본지 26호)가 나갔으나 오히려 대책보다는 사육하는 개의 숫자만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보물 284호인 석탑의 바로 옆에 지어진 개 집과 비닐을 씌운 발그리고 간이창고 문화재 보존 당국의 불성실을 말해주고 있다. (사진은 보리밭송모니터회 회원들이 촬영한 것.)

현대불교를 읽고

대학생 불교동아리 탐방관 신설했으면

구석구석 정성이 깃든 세련된 편집과 유익한 기사들의 시기적절한 배치로 우리 불자들을 건강한 신생활로 이끌어 주는 현대불교신문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불자로서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탐방이나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이란 코너를 보면 항상 직장인이나 보살님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신생활

을 엿볼 수 있어 알게모르게 불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불자들이 함께 숨쉬고 공감할 수 있는 코너가 없어 항상 아쉬워하던 중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저와같은 대학생 청년 불자들의 불교동아리를 탐방하는 코너를 하나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가는 신세대 X세대라는 이름과 함께 점점 개인주의적인 풍조가 팽배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써클활동도 예전에 비해 많이 축소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동아리의 경우는 불교가 구시대 종교라는 이미지가 대학내에서 벗지 못하고 있어 신입생우들을 맞이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때에 불교의 생활과 대중화 현대화를 추구하는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대학생 청년 불자들을 위한 코너를 마련해 그들을 격려하고 보다 세련된 현대화된 불교의 모습을 불교동아리에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

번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푸른 불교동아리를 찾아서' 어떻습니까?

백민우(서울 성동구 구의동)

그늘진 삶에 광명 전한 따뜻한 관심 감사

귀의 삼보하옵고 은 누리에 삼보의 진리가 총만함을 감사하며 아울러 현대불교의 정성에 이곳 순천 교도소 삼백여명의 불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귀사에서 보내주시는 많은 정성에 나날이 참된 불자가 늘어나고 수양에 더욱 정진하는 모습입니다. 이곳도 지난 초파일을 맞아 한일 한일 정성으로 연꽃을 만들어 부처님 오신 기쁨을 함께 했

까?

이연보(전남 순천교도소)

불교, 책, 법학, 법학, 법학

책방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오시는 길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 1.부터 시행)

-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정직통) 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번